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6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'극단주의자 테러' 가능성으로 불안 고조, 뉴욕은 최고 경계 돌입
 - 6.23 언론은 이란이 핵시설을 폭격한 미국에 보복을 선언하자, 美 정부가 중동 內 미군기지 및 본토에 대한 테러가 우려된다는 대책 마련과 함께 뉴욕은 '최고 경계 태세'에 돌입하였다고 보도
 - ※ 美 국토안보부, "이란을 추종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관료나 특정인물을 겨냥한 폭탄테러와 온라인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도 우려" 언급
- 美, 유학비자 신청 시 SNS 계정 공개 의무
 - 6.21 駐한미국대사관은 美 정부 방침에 따라 비이민 비자 소지자(학생 및 교환 방문자)에 대한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를 '공개'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격한 SNS 관련 지침을 도입 공지
 - ※ 美 국무부는 자국에 적대적 태도, 지정된 해외 테러단체나 美 국가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 세력(단체)에 대해 지지·지원하는 인원 등을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발표

유 럽

- 英, 팔레스타인 단체 금지 발표
 - 6.24 英 내무부 장관 「이벳 쿠퍼」는 반테러법에 따라 「팔레스타인 행동(Palestine Action)」의 활동을 금지할 예정이며, 해당 단체가 금융회사, 정부건물 등을 표적으로 삼아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발표

아 테

- 中, 정보기관들 AI 본격 도입
 - 6.18 언론은 中 정보기관들이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, 사이버 보안과 테러 연구 기관인 레코디스 퓨처의 보고서는 중국의 AI 활용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보도

- **韓 해수부, 중동해역 선원·선박 안전 우려로 관계기관 협력 강화**
 - 6.19 해수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안 위협이 높아져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
 - ※ 해수부는 외교부,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우리나라 선박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부언
- **韓, 인천항 안티드론 감시체계 구축 추진 中**
 - 6.23 언론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58억원 규모의 ‘인천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설치 사업’을 추진 중이며, ‘26년 2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※ 해당 사업은 드론 탐지 레이더·적외선 카메라·전파차단기 등 첨단장비를 통해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가능한 2중 대응체계(소프트·하드 킷)로 구성된다고 부언

중 동

- **이란, 정권 붕괴 시 대규모 난민 위기 발생 우려**
 - 6.19 언론은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난민들이 시아파가 다수인 아제르바이잔, 이라크, 튀르키예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인접국들이 약 600만 명 시리아 난민의 인접국 및 유럽국 유입으로 물가집값 상승, 치안 불안을 초래한 난민 사태 경험으로 이란 난민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부언
- **시리아,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첫 ISIS 자살폭탄 테러 발생**
 - 6.23 언론은 ISIS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회에서 자폭테러를 감행하여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으며, 이는 지난해 시리아 叛軍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뒤 발생한 첫 번째 자폭테러라고 보도
 - ※ 시리아인권관측소, “기독교 예배당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한 것은 수년만에 처음이다”며 비판에 의견을 제시

역사속 테러사건

일본 마츠모토市 사린가스 테러

- '94. 6. 27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市 법원 관사 소재지에 옴진리교 간부들이 사린가스를 살포, 7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
- 옴진리교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일본 전국에서 토지를 매입해 기도원을 세웠으며,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 발생
 - 주민들이 옴진리교를 사기죄로 고발하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암살하여 재판을 막기 위해 옴진리교 간부들이 가스를 살포
 - * 옴진리교는 마츠모토市에서 사린가스의 살상력을 확인한 후 약 9개월 후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테러('95.3.20)도 자행
-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테러에 사용된 물질이 사린가스임을 확인하였고, 피해자들이 후송된 병원에서는 해독제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
- 현지 당국은 화학테러 대응체계의 미비, 테러 배후 규명실패 등으로 비난받았으며, 이듬해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가 연이어 발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사린(sarin) 가스 >

- (제 조) '38년 독일의 화학자인 「게르하르트 슈라더」에 의해 최초로 합성
- (독성) 독성은 청산가리의 500배 수준이며 무색·무취로 피부, 호흡으로 흡수되어 마비, 구토,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호흡근육 마비로 질식사
- (처치) 옷을 벗기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눈 및 피부를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, 해독제(아트로핀, 프랄리독심) 투여
- (사용사례)
 - '80년 이란-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이 무기로 사용
 - '95년 옴진리교가 사린가스를 이용하여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
 - 소련-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아프가니스탄 민가에 사용